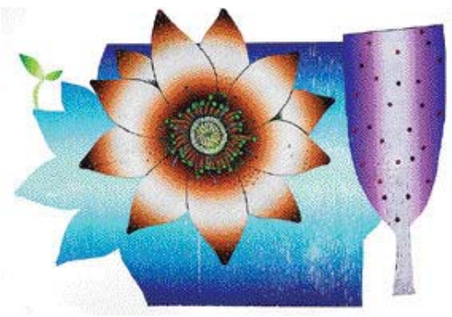
허공에 떠다니는 꽃봉오리

안진성 판화전, 광주신세계갤러리



'Secret Garden'

판화가 안진성씨가 16~2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Secret Garden'을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안씨는 이번 전시에서 활짝 핀 꽃봉오리가 부유하듯 허공에 떠다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을 전시한다.

그동안 유성 목판화 작업을 주로 해 왔던 그는 이번 전시에서 장미를 세밀하게 표현한 회화 작품도 선보인다. 이들 회화 작품은 꽃 사진을 프린트한 후 물감으로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표면에 목판화 특유의 거친 선이 남아 있는 판화 작품과 섬세하게 꽃잎을 처리한 유화 작품이 서로 조화를 이뤘다. 뿌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꽃봉오리를 통해 작가는 40대 남성의 외로움을 표현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안진성씨는 중국 판화비엔날레 등 다수의 국제 판화전에 참여했다. 한국미협,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에뽀끄 등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찬미 가야금 독주회

17일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오찬미〈사진〉 가야금 독주회가 17일 오후 7시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연주 곡목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12현 가야금 곡 '은하수', 전통 민요 '밀양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25현 가야금 곡 '아랑의 꿈' 등이며 '키싸스 키싸스 키싸스', '첨밀밀' 등 대중음악들도 가야금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전남대 국악과를 수석 졸업한 오씨는 무등가야금연주단, 가연하비 가야금 연주단 등에서 활동중이며 현재 조선대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휘준 '한국 고대미술의 특징' 특강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26일 오후 3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고대미술 전문가인 안휘준(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사진)씨를 초빙해 '한국 고대미술의 특징'을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갖는다.

안씨는 특강을 통해 조선 초기의 안견 작품을 예로 들어 한국 회화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문화사적인 의미 등을 들려준다.

또 전통 회화에 대한 편견과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아 준다. 고대부터 조선말까지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등지와의 그림 교류도 소개한다.

문의 062-570-70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싹~ 한 추리소설로 무더위·열대야 날린다

본격 휴가철 시작 국내 추리작가들 잇따라 신간 출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을 앞두고 추리소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08년 '제국신문'에 소설가 이해조가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 '쌍옥저'를 발표한 지 만 100년이 되는 해. 국내 추리소설 작가들의 신작을 비롯해 신세대 추리 스릴러 작가들의 역량을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을 엮은 단편집도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또 '셜록 홈즈'의 작가 코넌 도일, '오리엔트 특급살인'의 저자 이자 추리문학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 '괴도 루팡'을 쓴 모리스 르블랑 등 이들의 고전 추리소설 뿐만 아니라 해외 스릴러 소설도 대거 출판되고 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수목드라마 '일지매'의 작가 허수정은 '왕의 밀사-일본 막부 잠입 사건' (밀리언하우스)를 들고 나왔다.

일본의 정한론을 근거로 막부 내부의 분열과 권력 암투를 그린 소설로 조선 효종 6년인 1655년 일본 교토에 조선통신사 일행이 도착하면서 연쇄 살인사건이 터진다. 살인사건은 외교문제로 번져 조선과 일본은 임진왜란을 겪은 지 100년도 안 돼 또다시 전쟁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훈민정음 암살사건', '백제결사단' 등의 소설로 알려진 추리작가 김재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첩보 스릴러 '색, 샤라쿠'(레드박스)를 출간했다.

1794년 일본의 에도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당시 일본에 출현했던 천재 화가 도슈샤이 샤라쿠가 바로 조선의 화가 신윤복이었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일본 사회를 정탐하기 위해 첩자로 파견된 신윤복이 활동자금을 벌기 위해 샤라쿠라는 판화가로 위장해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미술관의 쥐'로 화제를 모았던 소설가 이은은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소재로 인간 내면의 공포를 다룬 '코미디는 끝났다' (랜덤하우스)를 펴냈다.

소설은 인기 개그맨 이진수가 어느 날 '너는 열흘 후에 죽는다, 반드시. D.'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매일 카운트다운 메시지가 도착하면서 이진수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한국추리작가협회는 추리작가 10명의 단편을 묶어 2008 올해의 추리소설 '수양대군 살인사건'(화남)을 펴냈다.

한국추리작가협회 명예회장인 이상우의 표제작을 비롯해 '낭이전'(이수광), '신혼여행, 이번이 몇 번째야?'(강형원), '그녀의 펫'(방재희), '데스노트'(설인효), '푸른 비늘 위에서'(신재형) 등 중견에서 신인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됐다.

지난 5월에는 '한국추리스릴러단편선'(황금가지)이 나온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스릴러문학단편선'(시작)이 출간됐다. 이들 단편집에는 최근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이는 젊은 작가 20여 명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밖에 스릴러, SF, 판타지 등 장르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출판사 '황금가지'는 '한국환상문학단편선' '한국공포문학단편선' 등을 새로 준비 중이며, '시작' 출판사도 조만간 환상문학단편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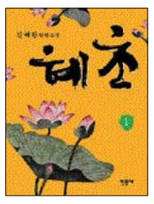
김탁환 소설 '혜초' 홈페이지 마케팅

출간 앞서 인터넷 독자 찾아

소설 '방각본 살인사건', '리심' 등의 저자 김탁환(40)씨는 신작 소설의 출간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먼저 독자를 찾았다.

이달 20일께 출간을 앞둔 장편 소설 '혜초'(민음사 펴냄)의 공식 홈페이지(http : //hyecho.minumsa.com)가 11일 미리 문을 연 것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소설의 내용과 등장인물, 작가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혜초' 소개 동영상, '왕오천축국전'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혜초를 따라가는 작가의 여정 등이 입체적으로 담겨있다.

홈페이지를 제작한 민음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승려 혜초의 이야기가 하나의 소설에 머무르지 않고 잃어버린 우리 유산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사에서 신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출판계에서는 홈페이지보다는 오히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를 통한 신간 마케팅이 활기를 보여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공지영이나 정이현, 성석제, 김훈 등 젊은 독자층이 많은 작가들의 신간이 나올 때면 출판사들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행사나 관련 기사 등을 소개해왔다. /연합뉴스

일곡도서관 동아리 회원전

40명 15~31일 일곡갤러리

제4회 일곡도서관 동아리 회원전이 15일부터 31일까지 도서관 내 일곡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일곡도서관 동아리 22개반중 닥인형, 퀼트, 폼아트, POP등 4개반 동아리 강사와 회원 40여명이 8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닥나무속의 껍질을 삶아서 철사, 흰색 한지를 이용 제작하는 닥인형 작품으로는 '윷놀이', '아이스크림 먹는 풍경', '잠자리' 등 여름풍경이 담긴 25점을 전시한다.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퀼트는 가방을 비롯해, '여름풍경 벽걸이, 커튼등 실용성과 작품성을 살린 20여점이 전시된다. 문의 062-575-34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뉴욕, 도쿄 그리고 광주

일본의 최북단 섬 홋카이도 하면 가장 먼저 눈이 떠오른다. 특히 홋카이도의 제1도시이자 동계올림픽과 눈축제의 무대였던 삿포로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최근 삿포로의 아성을 위협하는 라이벌이 등장했다. 다름 아닌 오타루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홋카이도의 자그마한 항구 오타루는 일본의 북방영토 야욕을 불태우는 전진기지였다. 하지만 일본의 패전으로 오타루 역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지난 1995년 변방의 오타루가 세상의 중심으로 나왔다. 영화 '러브레터'를 통해서다. 이와이 슌지 감독이 오타루의 아름다운 설원을 배경으로 만든 애틋한 멜로물 '러브레터' 덕에 오타루는 하루아침에 '눈의 도시'로 떠올랐다.

오타루 처럼 영화 한편으로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도시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뉴욕 만큼 현대영화로 부터 사랑을 받은 도시는 드물다.

우디 앨런은 40년간 뉴욕에 살면서 '뉴욕스토리' 등 뉴욕을 평생의 테마로 삼고 있다. 물론 최근엔 '매치 포인트' '스쿠프'의 배경을 런던으로 옮겼지만 그의 '아이 러브 뉴욕'은 변함없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센트럴 파크 ('뉴욕의 가을')는 로맨스의 명소다. '프라하의 봄'과 '비포 선 라이즈'는 프라하와 빈으로 가는 수많은 배낭 여행객을 쏟아냈다. 영화 '노팅힐'은 런던의 벼룩시장인 노팅힐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탄생시켰다.

하지만 예술의 도시라면 파리를 빼놓을 수 없다. 2년전 개봉된 '사랑해, 파리'는 세계적 감독 18명이 파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고백한 옴니버스 영화. 파리를 열여덟 구역으로 나누고 그 특성에 맞는 5분짜리 멜로를 찍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은 도쿄를 배경으로 한 세편의 옴니버스 영화 '도쿄!'에서 '흔들리는 도쿄'를 연출했다. 봉 감독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히키코모리의 일상을 통해 대도시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려냈다. 미셸 공드리, 레오 카락스 등 유명감독을 끌어들인 '도쿄!'는 지난해 칸 영화제 시사회를 통해 도쿄의 숨은 매력을 세계에 알렸다.

광주로 눈을 돌려보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분투중이지만 세계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문화 이미지는 부족하다. '꽃잎' '화려한 휴가' 등 5월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긴 하나 광주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처럼 한 편의 영화는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정도로 위력적이다. 특히 회색빛 도시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데 영화 만큼 효과적인 매체도 없다. 그렇다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더불어 내로라 하는 감독들이 광주를 영화로 '재발견'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세계인들이 '광주 스토리', '사랑해, 광주' 라는 프레임으로 광주를 새롭게 바라본다면 말이다. 상상만 해도 두근거리지 않은가.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